

## 대한해운

1분기 영업이익 453억원

대한해운(대표 이진방)의 올 1/4분기 매출액은 8.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해운이 최근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1/4분기 매출액은 2850억원으로 전년동기 매출 2619억원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업이익은 453억원으로 전년동기 606억원보다 25.2% 감소했으며 영업외수익도 272억원으로 전년동기 308억원보다 11.7% 감소했다. 특히 영업외수익중 외화환산이익은 125억원으로 전년동기 252억원보다 50.4% 감소했다.

경상이익도 606억원으로 전년동기 826억원보다 26.6%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도 574억원으로 전년동기 764억원보다 24.9% 감소했다.

올 1분기 실적 감소는 벌크시황 하락과 외화환산이익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STX PAN OCEAN

해양대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STX PAN OCEAN(주)는 최근 해운 관련학과 대학생 중 우수장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 5천 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표해양대학교에서 뽑혔다.

STX PAN OCEAN(주) 해양 전문인 양성을 통해 해운산업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연 1회 관련학과 4학년 재학생 중 학과 성적 우수자를 해당 대학교로부터 추천받아 'STX팬오션 산학장학생'을 선정, 1년치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향후 장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STX팬오션의 3등 항해사로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학생은 취업 기회를, 회사는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STX그룹은 지방자치단체에의 성금 기탁, 농어촌과의 자매결연 체결(1사1촌 운동), 그리고 대규모 고용창출 등을 통해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 창원대학에 발전기금을 기탁한 바 있다.

## 천경해운

950TEU급 풀컨선 진수식

천경해운(대표 김지수)은 5월10일 대선조선에서 컨테이너선 'SKY PRIDE' 호의 진수식을 가졌다.

'스카이프라이드(SKY PRIDE)' 호는 950TEU급 풀컨테이너선으로 전장은 142.3m에 선평 22.6m, 선심 11.2m이고 18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다. 이 선박은 건조가 완료되는 8월 중순에 새로운 노선에 투입된다.

김지수 천경해운 사장은 진수식에서 "오늘 진수하는 스카이 프라이드호는 그동안 천경이 대선조선주식회사에 발주한 15번째 선박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주)천경의 협조하에 건조된 것"이라며, 원자재값의 상승 등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술과 완벽한 시공으로 본선을 진수하기까지 심혈을 기울인 대선조선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김 사장은 또 앞으로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술진 여러분들의 지원과 노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끝으로 "대선조선에서 건조한 모든

선박이 훌륭하게 건조됨으로서 조선업계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해운업계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다”며, 끝으로 오늘의 본 진수식을 계기로 대진조선, 한국수출입은행 및 저희회사의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티피씨코리아

4,200DWT급 등 2척 구입

티피씨코리아(TPC Korea, 대표 정신중)가 최근 선박 2척을 구입하는 등 선대를 확충했다.

티피씨코리아는 2001년에 2월 설립한 원목수송 전문 선사로서, 미국, 서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벌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원목수송선단 20여척을 운항하고 있는데, 선대를 확충하여 벌크화물을 전세계에 운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티피씨코리아는 그 일환으로 중고선 2척을 구입했으며 5월12일과 25일 각각 인수한다.

동 선박들은 용선을 대신해 기존 티피씨코리아가 서비스하는 노선에 투입하게 된다.

## 한진해운

창립 28주년 기념식

한진해운(대표 박정원/www.hanjin.com)이 5월16일 본사 대강당에서 박정원 사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임직원과 대외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사내 임직원 및 조직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한진해운이 주최하고 한국 해양소

년단 연맹이 주관한 ‘제 6회 바다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겸해 진행되었다.

한진해운 최고의 영예인 2004년도 한진쉬핑맨(HANJIN SHIPPING MAN)상에는, 남중국 물류비용 절감과 물류조직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중국지역본부 Xian Zhu Zhou 부장과, 지속적인 업무 개선과 후진 양성 노력을 인정받은 우종섭 상무기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04년도 우수지점에 부산물류지점, 시카고지점, 함부르크지점, 뎀진지점, 포트켈랑지점이, 우수대리점에 타이페이, 안트워프, 방콕 대리점이 선정되었다.

한편, 사내외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직원에 대한 봉사상 수여, 해상직원 가족에 대한 알뜰상, 효행상 수여 등 특별 표창 시상도 눈길을 끌었다.

‘제 6회 바다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에서는, 초등부 대상에 성사 초등학교 홍순지, 중등부 대상에 서울 전동중 김다운, 고등부 대상에 과천 외국어고 최송아 학생이 각각 수상하였다.

박정원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나눔 문화 정착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한진해운의 창립 기념 문화를 만들자’고 말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종합물류기업』목표를 달성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지역에 보내질 청소년돕기 구호물품을 (주)한진과 함께 무상으로 수송했다.

이번 무상운송은 한국청소년연맹이 준비한 지원물자인 의류 및 생활용품, 책걸상, 컴퓨터, 학용품 등 40피트 컨테이너 6개를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보라매 공원 체육관에서 우리 회사 부산 터미널까지 육상운송은 (주)한진이, 부산에서 스리랑카까지 해상운송은 한진해운이 지



원했다.

이번 지원은 한진해운과 (주)한진이 공동으로 '땅과 바다'를 잇는 통합수송체계를 선보인다. 이에 따라 (주)한진은 4월20일(수)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부산 터미널까지 컨테이너를 수송했으며, 한진해운은 4월23일 컨테이너 선적을 통해 스리랑카로 운송, 5월5일 현지에 도착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쓰나미 피해 이후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피해지역에 구호금 약 10만달러, 무상 냉동컨테이너 기부 및 무상운송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번 무상운송으로 지속적인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한국청소년연맹은 5월7일(토) 160여명의 청소년자원봉사자와 가천의과대학 의료진 8명으로 구성된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했다.

## 현대상선

당기순이익 1558억원

현대상선(대표 노정익, hmm21.com)을 1/4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2.4% 증가한 1558억원을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같은 1분기 당기순이익 규모는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1/4분기 매출은 1조2,3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910억원에 비해 3.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507억원으로 전년 동기 1,258억원 대비 19.8% 증가했다. 또한 경상이익은 1,89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535억원 대비 23.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52.4% 증가한 1,558억원을 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놀랄만한 실적은 환율하락 및 유가급등 등 여러 가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에 비해 유가는 급등했고, 환율은 떨어져 매출과 이익 규모가 10% 이상 감소될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순이익은 급증하는 실적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전년과 비교해 순이익이 52.4%나 급증한 것은 1/4분기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평가할만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현대상선 측은 사상최대의 호황이었던 지난해 실적에 비해, 이를 더욱 상회하는 높은 수익을 올린 것은 해상운임 상승과 각 사업부문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수익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이자비용과 같은 영업외비용이 현격히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상선 노정익(盧政翼) 사장은 5월6일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세계 해운업계가 여러 가지 경영변수들이 상존하는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어 임직원들에게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며, 임직원 모두는 실적에 자만하지 않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주들에게 재삼 강조하였다.

한편, 현대상선은 5월4일 평택 인수기지에서 국적 1호선 '현대 유토피아' 호의 200항차 달성 기념 및 안전운항 기원제를 내외귀빈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200항차를 맞은 현대 유토피아호의 성과는 눈부시다. 200항차 동안 현대 유토피아호가 운항한 거리는 지구 42바퀴를 도는 거리인 170만Km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수송한 LNG는 총 1140만톤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반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현대 유토피아호가 올린 매출은 5억6,000만달

러로 선가인 2억3,500만달러의 2배를 이미 넘었으며, 1994년 첫 취항이후 11년간 무사고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대 유토피아호는 한국 LNG 운송사업의 역사에서 선구자적인 선박이다. 1994년 당시 무공해 청정에너지로서 LNG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송은 외국 해운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선사의 힘으로 운송하자는 취지로 탄생한 선박이 바로 현대 유토피아호다.

현대 유토피아호는 조선업계의 LNG선 성공신화에 견인차가 됐다. 현대상선이 현대 유토피아호를 안전하게 운항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든 LNG선으로도 LNG를 영하 160도의 냉각상태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돼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LNG선 수주를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성장했다.

현대상선은 국적 1호 LNG선인 현대 유토피아호를 시작으로 현대 그린피아호, 현대 테크노피아호, 현대 코스모피아호, 현대 아쿠아피아호, 현대 오션피아호와 용선선박 1척 등 총 7척의 LNG 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연간 수송물량도 1994년 60만톤에서 올해 540만톤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적인 LNG 수송선사로 성장했다.

## 흥아해운

### 해외 현지법인 3곳 계열사

흥아해운(회장 이윤재)은 최근 김태하 상무(컨테이너영업본부장)를 전무로 승진선임하는 등 임원급 승진인사와 임직원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승진) △전무이사 김태하(컨테이너영업본부장)

△이사 하명조(컨테이너영업본부), 변재현( )

(주재원 변경) △인도네시아사무소 소장 이병인 상무, 이영재 부장 △업무심사팀 김수완 차장 △오사카 안전감독관 김권추 차장 △탱커팀 한석우 과장

한편, 흥아해운은 최근 해외 현지법인 3곳을 계열사로 추가함에 따라 계열사가 총 18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흥아해운은 말레이시아 현지 해운대리점인 'HEUNG-A(M) SDN.BHD'를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10만5,006주를 취득, 지분율 70%를 확보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해운대리점인 'PT. HASPUL International Indonesia'도 주식 19만주를 취득해 지분율 95%를 획득했다.

또 일본 해운대리점인 'SAN EI SHIPPING CO. Ltd.'도 주식 1만8,000주를 매입, 지분율을 45%로 확대했다.

## 부산항만공사

### 외국선사 대표와 간담회

부산항만공사(사장 추준석)는 4월25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P&O 네들로드, 에버그린, 아메리카프레이저트라인 등의 15개 주요 외국적선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설립 2주년에 즈음 부산항만공사의 최근 활동사항과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올해말부터 단계적으로 완공되는 신항의 개발계획과 배후물류단지 조성 및 입주업체 선정계획, 부산항의 장기적 발전전략 등을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부산항



을 이용하는 외국적선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항만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향후 신항의 운영 정책 및 배후부지의 조성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KL-Net

‘비전 2020’ 설명회 개최

해운항만 물류정보화기업인 한국물류정보통신주식회사(KL-Net 대표 박정천)는 5월3일 아미가호텔에서 KL-Net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해운물류업계 인사들을 초청해 ‘KL-Net Vision 2020’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과 최장현 해양수산부 차관보, 이재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등 정부 인사와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무 등 관련 단체 및 업계 인사 30여명이 참석, 새롭게 출발하는 KL-Net의 희망찬 미래를 격려했다.

박정천 대표이사의 감사인사로 시작된 행사는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의 격려사에 이어 KL-Net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KL-Net 비전 2020’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KL-Net은 참석자에게 KL-Net의 오늘이 있기까지의 후원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당부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대표는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KL-Net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창립정신과 사명(社命)을 항상 가슴 속에 새기면서 전 임직원이 일치 단결해 KL-Net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1일 창립 11주년을 맞이한 KL-Net은 대한민국 해운항만 물류정보화 대표기업으로서의 확고한 기반 아래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인 물류IT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전직원이 결의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청소년 한강축제 개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이정화, SK해운(주) 대표이사)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후원하는 청소년 한강축제가 5월22일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에서 개최된다.

‘제10회 바다의 날’ 및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축제에 대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측은 “청소년들에게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 한강축제뿐만 아니라 한강시민공원의 해양·레저스포츠의 장으로 새로이 태어난 해양스포츠훈련장의 개장을 축하하는 ‘해양스포츠훈련장 개장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개장식은 해양소년단 대원들의 축하공연과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제막식 및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기념승선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공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강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한 해양스포츠훈련장에서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한 해양소년단 대원들의 수상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강보전을 위한 환경보호활동도 병행해 진행된다.

특히 개장식을 축하하는 수상오토바이와 플라이피쉬, 바나나보트의 퍼레이드는 청소년 한강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해양환경개선 동영상 제작배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朴宰永))은 조합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활동상을 동영상물(CD 2,000개)로 제작하여 조합원사, 유관기관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배포하였다.

이 동영상물은 상영시간이 총 9분으로 조합원사 등 고객과 조합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방제사업, 청항사업, 선박 폐유수용시설 사업, 해양환경개선 사업, 예선 및 기중기 사업 등 조합이 수행하는 주요 추진사업을 알기 쉽도록 제작되었으며, 특히,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피해를 사실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교육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토록 제작하였다.

또한, 영문과 일어로도 제작함에 따라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보전 전문기관으로 IMO 총회 등 국제회의에 수시 참석하는 조합의 홍보를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한다.

조합은 동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홈페이지 방문객들이 쉽게 동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각 항만의 연안여객터미널 등에서도 상영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해법학회

정기학술발표회 개최

한국해법학회(회장 채이식 고려대 법대학장)는 5월13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봄철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해법학회 봄철정기학술발표회에서는 중국 청화대학 법학원 푸팅중(傅廷中)교수와 한국외대 법학과 김동훈 교수, 목포 해양대 김인현 교수 등이 주제를 발표했다.

또 한진해운 법무보험팀 이영태 부장,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 원광대 나운수 교수, 법무법인 지우의 윤석희 변호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부연구위원, 건국대학교 김병연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 주제발표내용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 한국해양대학교

새 실습선 '한바다호' 진수식

한국해양대학교는 지난 4월21일 오전 11시 경남 진해에 있는 STX조선에서 새 실습선 '한바다호'에 대한 진수식을 가졌다.

해양대학교의 실습선 '한바다호'는 기존 '한바다호'의 뒤를 잇는 국내 최초의 '2세(주니어) 실습선'으로 길이 117m, 너비 17.8m에 달하는 6,700톤급 크루저형 실습선이며 2년만에 건조됐다.

총 600억원을 들여 건조된 '한바다호'는 최고급 호텔식 인테리어와 원거리통신이 가능한 랜 시설을 갖춘 선박으로 오는 2005년도 2학기부터 한국해양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해기사 교육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75년부터 30년간 오대양 37만여 마일을 항해하며 1만여명 해기사들과 함께 한 3500톤급 1세대 '한바다호'는 오는 6월 1학기 원양실습을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위한 해양학습체험관으로 개조될 예정이다.